

#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범국가적' 연대 선언

##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컨퍼런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비상태를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종로구 포시즌스 서울에서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한국교회총연합, 한반도미래연구원, 이공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는 종교계와 정관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초대인사에서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초 강연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등을 기반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환영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도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엔 "한국 사회의 종교계와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더 나은 출생 지원 및 돌봄 그리고 출생 관련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정부와 함께 가족친화적인 인식변화와 여권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한다"

## 대전 첫 퀴어행사 맞서 시민 5000명 반대 집회



지난 6일 오후 4시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서는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70여 개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퀴어축제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대전에서 처음 열리는 동성애(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였다. 시민대회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소재동 일원에서는 퀴어행사가 강행됐다. 시민대회는 퀴어행사의 '맞불 집회' 격으로 기록교계 등이 뜻을 모아 기획·개최된 것이다.

대회 주최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선량한 성윤리를 지키고 건강한 대전을 위한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장인 심상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보면 국가와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할 때 중

언을 고한다고 할 수 있다"며 "동성애는 병든 시대를 진단하는 잣대다. 이에 기반한 퀴어행사를 결코 용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선 전문가 등이 나서 퀴어행사의 부당성과 성명명 살해를 고발했다.

이행우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선 유해 도서들을 통해 잘못된 성교육이 행해진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포장한다"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즉시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동성애자인 박진권(39)씨의 간증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15년 넘게 동성애자로 살다가 벗어난 계기를 진술하게 고백했다.

집회 말미엔 특별기도회에 이어 대전역에서 서대전네거리까지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길가에서 우려했던 퀴어행사 주최 측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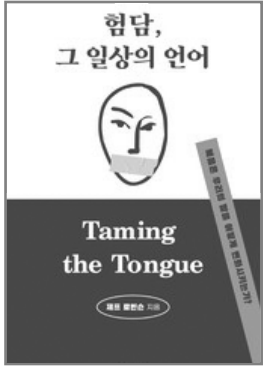
한 권의 책

## 협담, 그 일상의 언어

제프 로빈슨의 《협담, 그 일상의 언어》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말과 관련된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말을 바르게 곱들여(taming) 가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단순히 '협담하지 않는 법'이나 '말을 잡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말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는 먼저 우리 삶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두움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격정을 방지한 협담, 흥미를 채우기 위한 대화, 지키지 못할 비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말로 인해 부러진 관계는 회복시키기 어렵다.

이 책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죄, 자기중심적인 태도,



분노, 오만함, 교만 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말 속에 곱겹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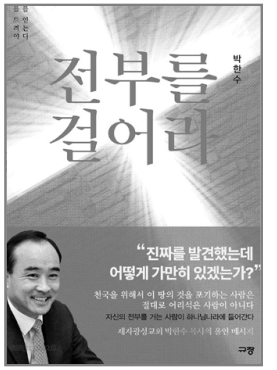
저자/제프 로빈슨 역자/권명지 출판사/구름이 머무는 공간

## 전부를 걸어라

"오늘 나는 무엇을 드려서 천국을 사는가?"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는 구원 얻음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믿음을 지켜서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에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는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말세지말의 현실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북돋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악법의 제정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



켜내는 일도 전부를 드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책의 요체이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에 대적할 믿음으로 무장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박찬수 출판사/규장

## '공공선교'로 하나님 나라 구현해야

### KHN 코리아네이비스 컨퍼런스 개최

KHN 코리아네이비스(이사장 이정)의 목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공공선교와 선교적 상상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록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공공선교' 실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한편, 오는 9월

'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로잔이 내세운 '총체적 선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공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KHN 코리아네이비스 이사장이 정인목사는 "한국교회는 '공공선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환기시키고, 정치·교육·법·문화 등 전 영역에서 공공선교를 실현할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한

국교회는 공공선교센터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법대 학장), 주상락 교수가 '로잔운동과 공공선교학', 이규영 박사(서강대학교 명예교수, KHN학술원장)가 '국제정치', 성석환 교수(장신대)가 '문화', 김성수 교수(평택대)가 '법', 김승환 교수(장신대)가 '공적목회', 김상덕 교수(한신대)가 '기록교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후 김성호 교수(서울신대)의 논전을 거쳐 강연자들과 함께 목회 현장 및 공공선교 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다.

## 오는 10월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개최

극한의 스포츠를 통해 지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 익스트림 기도축제 머스카슬론(Muskathlon) 대회가 오는 10월 8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오른도어선교회는 4일 서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일정과 취지를 발표했다.

머스카슬론은 마라톤(42.195km), 하이킹(63km), 자전거(100km) 세 종류의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와 이를 위한 사전 모금활동, 현장에서 예배 등이 이루어진 기도축제다. 원대 스포츠 전문기관 4MOI 전세계 인력선장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작했다. 오른도어선교회와 협력하면서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는 익스트림 기도축제에 거듭났다.

특히 한국오른도어와 네덜란드 오른도어, 4MOI 공동주최하는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획됐다. 북한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박해지수 1위 국가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휴전선이 보이는 소이산에서 북한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대회에는 40여 명의 네덜란드 참가자들과 한국 참가자 30명, 탈북 청소년 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참가자들은 준비 양으로 참가하며, 북한교회를 위해 1인당 1만 유모한화 약 1,500만원을 모금했다.

## 백석총회 공적·퇴직연금 결합 연금제 추진

백석총회(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한 복회자 연금제도를 추진한다. 백석총회는 금융권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결합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신고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백석총회는 "평생 목회에 헌신하고도 노후 보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한 은퇴 목회자를 위한 긴급 지원도 시행한다. 은퇴 목회자 가운데 월 소득이 전무한 저소득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생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백석총회는 매년 정부

지원 사업인 '국민복지' 일자리-돌봄서비스에 연결하여 목회자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석총회는 △공공의회 연결성 2000만원 이하 교회 국민연금 납부 지원 △총회 주일 헌금 납입교회 목회자 대상 퇴직축하금 적립(총회주일헌금 납부액의 30~50%) △총회 연금제 적립 등을 실시한다.

한편 백석총회는 신하 교회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부처사 전도사 포함을 대상으로 연금제를 추진하며, 향후 총회 헌법과 규정에 제반 규정을 마련해 교회의 의무가 입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여름사역에 승리하세요" - 34개 지방회 주재기자-

<p><b>강서지방회 구래동늘바람교회</b></p> <p>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409 푸르지오@ 514동 903호 Tel. 010-8131-9182</p> <p> 김정중 목사</p>	<p><b>경기동지방회 내리교회</b></p> <p>경기도 양평군 개교면 산수유2길 34 Tel. 031-772-8649</p> <p> 배성탄 목사</p>	<p><b>광주지방회 나주늘바람교회</b></p> <p>전남 나주시 남교로 16-10 Tel. 010-8503-7810</p> <p> 이곤민 목사</p>	<p><b>서산지방회 원정교회</b></p> <p>충남 서산시 인지면 원정1길 92 Tel. 041-662-3633</p> <p> 이근회 목사</p>
<p><b>강원지방회 속초중앙교회</b></p> <p>강원 속초시 만천7길 39 Tel. 010-3475-0756</p> <p> 서봉수 목사</p>	<p><b>경남지방회 진주나들목교회</b></p> <p>경남 진주시 분산읍 동부로 743 Tel. 055-761-2279</p> <p> 백현 목사</p>	<p><b>대전지방회 대전소망교회</b></p> <p>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89번길 30 Tel. 042-525-0175</p> <p> 김상범 목사</p>	<p><b>서울지방회 운화교회</b></p> <p>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20 Tel. 02-362-8190</p> <p> 이세영 목사</p>
<p><b>경기지방회 오전동교회</b></p> <p>경기도 의왕시 전주남1길 13 2층 Tel. 070-7628-9320</p> <p> 이종학 목사</p>	<p><b>경북지방회 강구교회</b></p> <p>경북 영덕군 강구시정길 40-3 Tel. 054-733-9982</p> <p> 석준기 목사</p>	<p><b>부천지방회 광석교회</b></p> <p>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26 Tel. 032-323-0442</p> <p> 이상수 목사</p>	<p><b>서울강남지방회 모이는교회</b></p> <p>서울 송파구 상전동 16-6 송영빌딩 3층 Tel. 010-5506-5782</p> <p> 이하용 목사</p>
<p><b>경기남지방회 큰은혜교회</b></p> <p>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3길 60 Tel. 031-682-9106</p> <p> 김인규 목사</p>	<p><b>고양지방회 일산동광교회</b></p> <p>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4 두산@상가 201호 Tel. 070-4184-6224</p> <p> 김순홍 목사</p>	<p><b>서마지방회 무안남광교회</b></p> <p>전남 무안군 봉천면 남천길 100-4 Tel. 061-453-1382</p> <p> 기정봉 목사</p>	<p><b>서울남지방회 좋은이웃성도교회</b></p> <p>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98번길 8 Tel. 02-583-5160</p> <p> 박기훈 목사</p>

성결신문 광고·구독 문의 Tel.070-7132-0091~5